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 FOOD

궁극의 맛



6.2-6.20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인문극장 2020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2013년부터 빅 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등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해 왔다. 2020년 두산인문극장의 주제는 ‘푸드 FOOD’다. 5월부터 7월까지 사회학과 인문학, 과학 등 각 분야의 강연자를 초청하는 강연 8회 및 공연 3편을 진행한다.

푸드 FOOD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먹어야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의미를 부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먹어 왔다. 인류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먹었는지 살펴보면 어떻게 지금의 인류에 이르렀는지 역사를 알 수 있다. 음식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아울러 인간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오늘날 음식문화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거대한 산업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매우 커졌다. 이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개인을 표현하는 방법에 가까워졌다고 할 만큼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없었거나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윤리적, 사회적 문제까지 함께 다뤄지기도 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은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두산인문극장 2020은 ‘푸드 FOOD’를 이야기하며 먹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살펴보고 먹는다는 것이 지닌 의미들을 되짚어본다.

공연

Space111

[연극] 1인용 식탁 5.6-5.23

원작	윤고은 「1인용 식탁」, 『1인용 식탁』(문학과지성사, 2010)
각색	이오진
연출	이기쁨
출연	김시영 윤성원 이새롬 류혜린 이화정 허영손 김연우

[연극] 궁극의 맛 6.2-6.20

원작	츠치야마 시게루 土山しげる 『고쿠도메시 極道めし』(후타바사 간행 双葉社刊)
각색	황정은 진주 최보영
연출	신유청
드라마터그	윤성호
출연	강애심 이수미 이주영 이봉련 김신혜 신윤지 송광일

[연극] 식사食事 6.30-7.18

작	안데스 윤희솔 이라영 조문기
연출	윤희솔

강연

연강홀

요리한다, 고로 인간이다 6.1 이욱정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음식의 정신심리학적 의미 6.29 김율리 인제대학교 섭식장애정신건강연구소장
다윈과의 만찬 6.8 전중환 진화심리학자, 경희대학교 교수	오늘의 식탁 7.6 정재훈 약사, 푸드라이터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 6.15 이도현 농업회사법인 성우 대표	농업이라는 산업, 농산물이라는 상품 7.13 김태호 과학기술학자, 전북대학교 교수
채식을 해야 하는 윤리적인 이유 6.22 김성한 진화윤리학자,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식품의 세계체제와 한국음식의 미래 7.20 주영하 음식인문학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시놉시스

무의 시간

맛도 잃고 말도 잃은 엄마에게 도착한
아들의 편지

자정의 요리

재소자, 교도관, 영양사. 자정의 조리실에서
벌어지는 세 사람의 작은 소동

선지해장국

국회의원 보좌관 K씨가 알게 된
맛에 대한 이야기

파스타파리안

오늘은 과연 스파게티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영롱한 면가락을 향한 재소자들의 갈망

왕족발

교도소 접견소에서 벌어지는 상견례 이야기

핑핑이 떡이 핑핑

탈북민 핑핑이 아줌마가 핑핑이 떡을 만들며
들려주는 가정부 시절 이야기

체

교도소 미술치료실에 모인 재소자들의
아트워크



연극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사막 속의 흰개미〉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노스체(NOSCE) 외

각색
황정은

원작의 인물들은 교도소라는 공간 안에서, 과거 일상에서 경험한 음식을 그리워한다. 그들에게 그 음식은 기억이고 추억이며 인생의 한 순간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궁극의 맛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자 음식으로부터 시작해 나의 기억과 추억, 소망과 바람을 되짚어 봤다. 되짚는 시간들 속에서 궁극의 맛이란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진하게 소통되는 기쁨, 오해로 인한 탄식, 마음이 어긋나는 슬픔, 서로를 감싸는 너그러움.

이러한 감정은 나에게 그리움이자 기다림이다. 만난 적 없는 마음과 만나고, 만났던 마음과 다시 만나기를 나는 언제나 기다리고 그리워한다. 아마 그래서 두 작품을 통해 기다림과 그리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려 냈는지도 모르겠다.

〈궁극의 맛〉을 통해 만난 적 없는 마음과 단 한 순간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이 작품 역시 나에게 ‘궁극의 맛’이 되지 않을까. 그 맛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 어려운 시기, 극장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린다.



연극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

〈정동구락부-손탁호텔의 사람들〉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외

창작소리극

〈검은늑대〉

각색

진주

원작의 만화로부터 참 멀리 왔다. ‘재소자’, ‘음식’, ‘죄’ 3개의 키워드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온전히 창작했다. 형식적으로도 많은 것을 실험하고 돌고 돌아 결국 지금에 이르렀다. 글을 쓰는 동안 죄와 사회의 구조적 연관성에 대해 생각했다. 죄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시선을 생각했다. 수많은 생각 끝에 3편의 글을 완성하고 보니, 본의 아니게 그 안에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죄의 맛은 무엇일까. 죄책감의 맛은 무엇일까. 엄마라는 인생의 맛은 무엇일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의 굴곡과 마주하는 순간을 보여주고자 했다. 우리가 추구했던 궁극의 맛은 정말 우리가 기대한 순간에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찾아올까? 망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조차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원하던 그렇지 않은 우리는 함께 나누어 먹으며 어우러지며 삶을 이어 가야만 한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아직 맛보지 못한 순간에 대한 기대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갔다.

서로 손을 잡고 킁킁한 어둠 속을 빠져 나온 느낌이다. 쓰는 과정에서 함께 독려하며 나아갔던 작가들, 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모든 배우, 모든 스태프에게, 특히 이 어수선한 시기에도 극장에 함께 해준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연극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드라마〉 〈산행〉 〈채상하나씨〉 외

각색

최보영

내가 이해한 대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도드라져 보이고 그 안에서의 맥락만을 좇게 된다.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이 있다면, 분명 가려진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 이들의 미래, 가족, 꿈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 어느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도소 안에서도 시간은 흘러가고 삶은 이어진다. 어쩌면 어떤 끝은 시작점일 수도 있다.

공연을 10일 앞두고 있다.

힘든 과정을 함께한 연출, 배우, 스태프, 작가 모두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연극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 〈와이프〉 〈녹천에는 똥이 많다〉
〈연체인〉 〈아내의 서랍〉 〈소리의 威力위력〉 〈그을린 사랑〉 외

년버벌 퍼포먼스
〈더 스트레인지 엘 the strange L.〉

수상
2020 제7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그을린 사랑〉
2019 제56회 동아연극상 연출상
〈녹천에는 똥이 많다〉 〈와이프〉, 작품상 〈와이프〉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9 공연 베스트 7'
〈녹천에는 똥이 많다〉



연출 신유청

극단 자주상회 연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기에 한 편의 연극을 준비한다. 돌아보면 몹시 무기력했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니까 연극 작업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연극 한 편이 오늘의 관객들과 어떤 접점을 이뤄낼지 예민하게 고민해야 했다.

올해 두산아트센터 두산인문극장 주제는 푸드다. <궁극의 맛>은 재소자의 기억 속에 머문 음식 이야기다. 작품 제안을 받았던 초반에는 음식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너무 많았기에 생각만 해도 피곤함이 느껴졌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음식'과 '감옥'에 대해 가치전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음식이 지닌 연결, 감옥이 지닌 단절. 연결과 단절의 묘한 체험을 주는 무대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3명의 작가들이 써준 에피소드를 가감없이 무대에 올리고자 했다. 평소 존경하는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이번에도 역시 신뢰하는 동료들이 주변에서 버터 주었기에 마음껏 기대면서 작업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모두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제는 그 시간이 관객들과 공유될 차례다. 공연을 보는 동안 관객들의 생각이 흘러갈 수 있는 여백이 담긴 시간이 되길 바란다. 함께 있음과 떨어져 있음에 대하여, 나와 다른 너를 만나는 시간, 함께 모여 있음에 대해 사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연극을 본다는 것 자체가 공존이다. 함께 모여 같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각각 다른 생각을 한다. 연극 한 편 자체가 매우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다. 만드는 사람, 보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모두가 오늘 이 한 편의 연극으로 황홀한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드라마터그의 글

윤성호

드라마터그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맛’은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 있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 안에 침이 고이게 하는 맛을 찾아 먹는다는 것은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맛’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맛이 단순히 미각만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자주 들던 노래를 우연히 다시 들을 때, 그 노래를 들던 시기, 당시 어울리던 사람들 등의 감각이 떠오를 때가 있듯, 그와 비슷하게 무심코 뜬 한 술에 친구와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한 젓가락의 음식에서 가족과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 음식을 먹었던 계기나 함께 자주 먹던 사람, 그리고 당시의 감정이나 기억들이 무의식적으로 맛에 새겨진 것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먹음이라는 행위를 통해 맛을 느끼고, 반대로 맛을 통해서 살아감을 감각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맛을 자유롭게 느끼고 누리는데 무엇이 차단된 공간에 있어야만 한다면 어떨까. <궁극의 맛>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재소자들이 그리는 맛에 대한 이야기다. 재소자들이 그리워하는 맛은 어떤 맛일까? 혹은 재소자들이 맛을 통해 그리워하는 추억, 혹은 피하고 싶어하는 기억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이 그리워하는 맛은, 추억은, 혹은 기억은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의 그것들과 얼마나 다를까?

원작 만화 『고쿠도메시 極道めし』는 주로 남자 교도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교도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각자

출소하면 다시 먹고 싶은 음식의 맛, 혹은 살면서 먹었던 맛을 수 없는 최고의 맛을 이야기하고 우승자를 가린다. 누구나 먹고 싶지만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제한이 극대화된 교도소라는 공간에서 자신이 먹었던 최고의 맛을 이야기한다는 설정 자체가 재미있는 작품이다. 또한 그 음식을 먹었던 순간, 계기, 관련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이 교도소로 오게 된 직간접적인 맥락까지 이어지고, 단순히 맛을 그리워하며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이야기까지 도착한다.

황정은, 진주, 최보영 작가가 다시 써낸 <궁극의 맛>은 원작과는 다르다. 우선 배경이 여자 교도소로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여성들과 관련된 맛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맛은 여성 재소자들이 살아온 삶, 그리고 기억과 연결된다.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함으로써 가장 많은 사람의 침을 삼키게 만든다는 대결이라는 설정을 바꾸어 단순히 누가 가장 맛있는 이야기를 하느냐가 아닌, 피하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거나 혹은 기억하고 염원하고 있는 맛의 모습을 그리려 했다. 그에 따라 원작보다는 다소 무거워진 것 같다. 크건 작건 사회에서 죄를 저지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참회와 교화의 공간인 교도소에서 단순히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 논하는 모습을 피하려고 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작가들은 이 재소자들이 단순히 먹고 싶은 맛이 아닌,

경험했던 맛과 연관된 재소자들의 기억에 주목했고, 당연하게도 그 기억은 재소자들을 삶의 궤적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던 죄를 저지르던 순간과 과정으로 이어진다. 강렬할 수밖에 없는 삶과 죄의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에 뒤따르는 후회, 회한, 슬픔, 체념이 이 갇힌 공간을 채우지만, 재소자들은 그저 기억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생에서 얽혀버린 실타래를 풀거나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교도소 밖에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교도소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사회로 돌아갔을 때 재소자들은 자신이 간절히 바랐던 그 맛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그 맛은 그들이 생각한 맛일까? 결국 이들이 궁극의 맛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가들은 그 과정을 묵묵히 따라간다. 죄인이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가 생겨나게 만든 가해자를 주시한다는 점에서 자칫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가해자 중심의 서사를 만듦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감이나 이해, 그리고 미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은 가해자에 대한 변명이나 정당화를 피하며, 그저 그들이 접하고 느끼며 기억하는 맛을 따라가며 그 맛이 어떻게 죄로 이어지는지를 주시한다.

그 맛의 기억을 따라간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의 맛과 기억은 우리의 그것과 얼마나 다를까.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개개인이 느끼는 맛이 다르듯, 그들의 맛과 우리의 맛은 무언가 다를 것도 같다. 그 맛의 거리가 바로 이번 <궁극의 맛>이 그려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Ludwig Feuerbach, 1804~1872)의 말을 인용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다. 본래 쓰였던 의미를 넘어서, 현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따라 건강이 결정된다거나, 단순히 영양학적인 의미를 넘어 도덕적 가치까지도 의미를 넓히고 있다.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당신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누구와 그 맛을 공유하고 경험했는지, 어떠한 맛을 추구하고 어떻게 그 맛을 함께 공유해나가고 싶은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경험하는 문화가 다르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듯, 다른 음식을 먹으며 자란 사람들의 삶이 같을 수는 없다.

맛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럼으로써 삶도 공유하고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재소자들의 맛을 지켜보고 나누어본다. 소화가 잘 되는 맛, 가벼운 맛, 무거운 맛,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맛, 너무 과해서 더러 체하게 만드는 맛. 이때 ‘맛’은 곧 ‘삶’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재소자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맛을 너무 많이 맛 봐버린, 체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죄를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더라도 이들은 먹어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죄를 저지른 이들과 함께 부대껴 살아가야 한다.

그 맛은 우리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것일까. 혹은 이곳에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것일까. 여전히 미지에 있는 궁극의 맛을 이제 관객들과 찾아보려 한다.

음식, 그 오묘한 세계

정재훈 약사, 푸드라이터

음식은 영양을 공급한다. <무의 시간>에서 재소자 5946의 아들의 말 그대로다. 맛이 안 나도 음식을 먹어야 한다. 고통 속에서도 새살이 나게 하는 건 결국 음식이다. 하지만 단순한 영양 섭취의 관점만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음식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배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그냥 먹기도 한다. 결혼식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먹는 하객도 있고 먹기 대회에서 이기려고 먹는 선수도 있으며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먹방을 찍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벌어진다. 인간은 자신이 먹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는 장면을 보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정말이지 2시간에 걸쳐 다양한 음식이 연이어 등장하는 무대를 객석에서 바라보는 것은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은 먹지 않으면서 타인이 먹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려면 자제, 협력, 관용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 크고 복잡하게 발달한 인간의 대뇌 피질 덕분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행위가 가능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먹을거리를 앞에 두고 서로 싸우거나 욕심내지 않고 자기를 조절하며 협동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능력 없이 타인과 함께 먹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역으로, 남과 어울려 식사하는 행위는 인간의 두뇌가 지금처럼 발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미식이란 무엇인가 질문하면 대다수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식사라고 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삶의 출발점이다. 밀로 만든 라면에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문어를 더해봤자 영양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재소자 1213에게는 딸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다. 소고기는 향 첨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한 소고기뭇국이지만 재소자 5946의 아들에게는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애증의 대상이다. 타인과의 식사는 음식에 영양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식사와 사회적 의미를 생각할 때 혼밥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혼자 밥을 먹는다고 백퍼센트 혼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문을 읽든 먹방을 보든 다른 사람과 직간접으로 접촉하면서 식사하기 마련이다. 매일 같이 혼밥하는 게 우울감을 줄 수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는 별 생각이 없다가 정작 재소자 5946과 그 아들처럼 혼밥하면서 가족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어울려 끼니를 먹는 행위에서 남이 먹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걸 즐기는 수준까지 변천을 생각하면 현대인에게 혼밥은 혼자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이며, 반가울 때도 있고 피하고픈 때도 있는 다면적 성격의 식사다.

식사는 결합과 연결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참석자가 평양냉면을 함께 먹는 장면은 오랫동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접견소에서 처음 만난 양가족의 상견례에도 음식이 빠질 수는 없다. 아멘 대신

라멘을 외치는 파스타파리안이 스파게티를 얼마나 진지하게 믿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모든 종교가 신성한 음식, 부정할 음식에 대한 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대한 사회적 원칙을 따르는 방식으로 구성원이 소속감과 연대를 표시하는 일은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음식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We are what we eat)”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음식 심리학의 대가 폴 로진(Paul Rozin) 교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찬도란(Chandorans)이라는 가상의 부족에 대한 두 가지 설명문을 제시하고 그들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쪽 그룹은 찬도란이 멧돼지를 먹고 거북이를 사냥해서 등껍질을 얻었다는 설명을 읽었고, 다른 한 쪽은 찬도란이 거북이를 먹고 멧돼지 엄니를 얻으려고 사냥했다는 설명을 읽었다. 흥미롭게도 거북이를 먹는다는 설명문을 읽은 참가자들은 찬도란 부족이 수영을 잘 할 거라고 답했고, 멧돼지를 먹는다는 설명을 본 참가자들은 그들 부족의 성향이 공격적일 거라고 답했다. 거북이를 먹는다고 수영을 잘할 리가 없고 멧돼지를 먹는다고 더 공격적이 될 리가 없음에도 음식의 속성이 그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선거철이면 많은 정치인이 길거리 어묵 같은 서민 음식을 먹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그런 대중의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진은 음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분명한 오류임을 지적한다. 선지해장국을 먹고 그 음식의 향미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서 김의원이 변했다는 증거는 없다. 자신을 돕는 보좌관마저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김의원의 눈에 선지해장국은 여전히 서민이 즐기는 미개한 음식이며 표심을 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기업 회장이 북한 서민의 음식 평평이

떡을 즐긴다고 해서 그가 가정부를 대하는 태도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는 경향은 반대로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요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과거 유럽의 요리사는 건축가나 조각가만큼 먹을 수 없는 전사용 음식으로 요리를 장식했고 부유층과 귀족은 그런 요리로 가득 채운 만찬으로 자신을 과시했다. 눈에만 좋고 먹을 수 없는 이런 허황된 사치로 가득한 요리는 19세기 선구자적 요리사 오귀스트 에스코피에(Georges Auguste Escoffier)가 등장하면서부터 식탁에서 사라졌다. 에스코피에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국한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인물로 불린다. 페란 아드리아(Ferran Adria)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음식의 요소를 해체, 재결합하여 추상화한 멜론 캐비어와 같은 분자요리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이제 음식은 예술의 소재나 대상이 아닌 예술 자체의 영역에 진입한 것일까?

아직 그 답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식사가 연극을 보는 것과 비슷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식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이 음식과 함께 만들어내는 경험이다.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이런 경험은 극대화된다. 매회 공연이 동일할 수 없다. 공연이 끝나는 순간 그 공연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 속의 경험이 된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예술 작품과 같은 음식을 만들어낸다 해도 먹지 않고서는 그 음식의 가치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먹는 순간 그 음식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 된다. 음식의 일부는 소화되고 화학적 변화를 거쳐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만 나머지는 배설된다. 어떤 음식은 체중과 구토를 일으키고 뱀어지고 버려지기도 한다. 그렇게 비워지고 또 채워진다. 연극 <궁극의 맛>의 막이 내릴 때 내가 먹지도 않은 식사를 여러 번 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강애심

연극

〈꽃의 비밀〉 〈테라피〉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뒷마루가 있는 집〉 〈빨간시〉
〈생각은 자유〉 외



18

이수미

연극

〈스카팡〉 〈뼈의 기행〉 〈자기 앞의 생〉 〈텍사스 고모〉 〈운명〉
〈처의 감각〉 〈3월의 눈〉 〈손님들〉 외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 〈슬기로운 의사생활〉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외

수상

2018 제55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텍사스 고모〉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그녀들의 집〉



19

이주영

연극

〈와이프〉 〈그을린 사랑〉 〈유령 Live Stream〉
〈당신이 그리운 풍경 속으로 떨어져 간다는 것은〉
〈2017 애국가-함께함에 대한 하나의 공식〉 〈검은 입김의 신〉
〈육쌍동이〉 〈반신〉 외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 〈아이템〉 〈열두밤〉 〈타인은 지옥이다〉
〈아스달연대기〉 외



20

이봉련

연극

〈메리제인〉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내게 빛나는 모든 것〉
〈나는 살인자입니다〉 〈발렌타인데이〉 〈1945〉 〈피카소 훔치기〉 〈만주전선〉
〈청춘예찬〉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 외



21

김신혜

연극
〈어쩌면〉 〈들어볼래 읽어줄게〉 〈발레를 그리는 마법미술관〉 〈사라진 아랑〉 외



22

신윤지

연극
〈모던걸 타임즈〉 〈포스트 아파트〉 〈버킷 리스트-미처 하지 못한 말〉
〈돼지들의 산책, 아무런 이야기〉 〈의자, 눈동자, 눈먼 예언자〉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제 2 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햄릿, 보여주다〉 〈미국 아버지〉 외



23

송광일

연극

〈환상동화〉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 〈생쥐와 인간〉 〈알앤제이(R&J)〉
〈그렇게 산을 넘는다〉 〈밀레니엄 소년단〉 〈고양이걸음〉 〈나쁜자석〉 외







움직임 노트

이소영

안무

관점은 어떻게 바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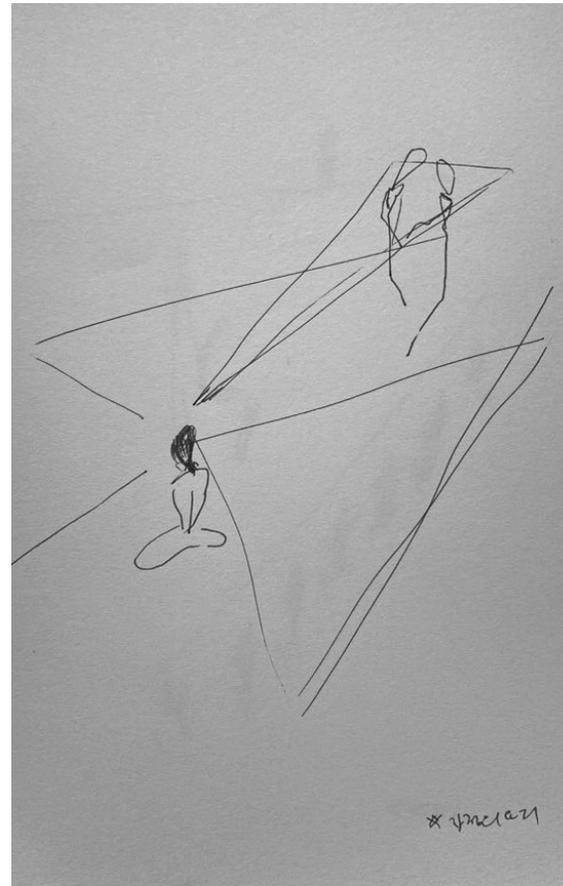
‘뒤통수’에는 눈이 없어 누가 나를 쳐다보는지 알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눈 없이 살,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뒤통수는 당신의 째려보는 눈빛을 볼 수 있다. 다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돌아선 채로 보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마음대로 숨기고 볼 수 있었던 뒤통수가 돌연 그 얼굴과 눈을 드러낸다면, 가느다랗게 뜨고 날카롭게 찌르듯 쳐다보던 누군가의 시선은 어찌 될까. 멀리, 때론 가까이, 나의 옆과 뒤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자신의 뒤통수일 수도 있다.

세 개의 모서리, 세 개의 긴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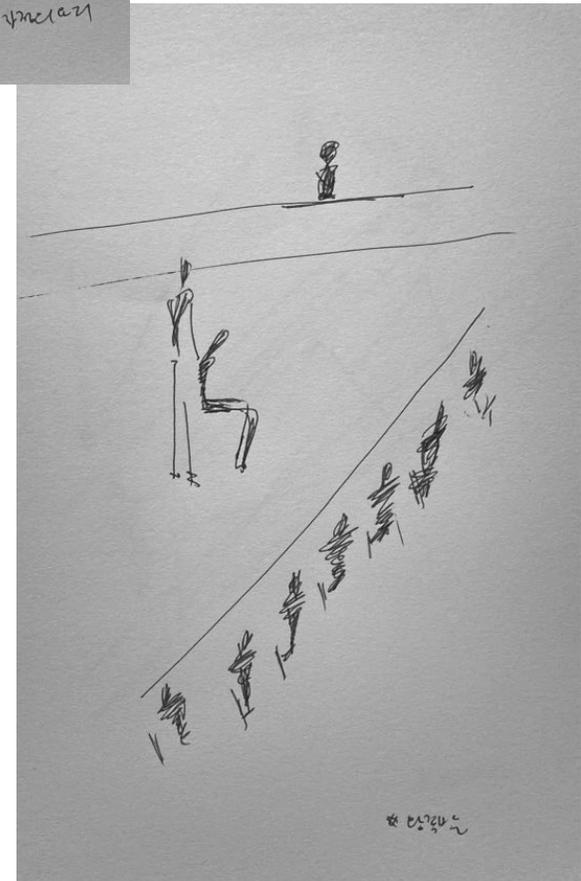
꼬리와 꼬리를 물고 입구와 출구를 막아선 긴 세 개의 변, 좁고 날카로운 코너로 배치된 공간에서는 좀처럼 온전한 상태로 서 있기 힘들다. 하지만 불확실한, 엉겨 붙은, 흩어지며 섞이는, 미끄러지는, 일어나기 위해 서로 지탱해야만 하는, 세상 밖으로 분출되는 움직임 속에 온전하다고 여겨지는 정면과 그렇지 않은 뒷면을 수시로 뒤집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무대는 세 가지 움직임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배우와 관객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 배우의 위치에 따라 관객의 시선이 교차될 수 있다는 것, 배우의 몸 자체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가능성은 장면마다 인물의 몸의 위치, 인물 간의 거리, 몸의 각도와 동선에 반영되어 배치되었다. 함께 움직이는 관객의 시선까지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궁극의 맛〉은 여느 공연처럼 배우들의 ‘몰입된 정면’을 주시할 수 있는 순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있더라도 특정 몇몇 순간에만 허용된다. 아마도 대부분은 뒷모습,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에 드러난 코 한 면, 대충 묶은 머리 끈지, 꼭 쥔 손가락, 흔들리는 눈동자, 떨리는 다리 등 그야말로 배우의 온몸, 그 살아 움직이는 몸의 삶을 표현하려 했다. 시선의 제한이 주는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함께 느꼈으면 한다.



* 2012.12.21



* 2012.12.21

무대 스케치

박상봉

무대디자이너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지 못하는 관계에서 같은 공간의 점유는 불편해진다.
불편함을 넘어서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까?

관객과 배우의 경계.

‘그 경계를 허물고 같은 공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자’

이것이 <궁극의 맛> 무대의 키워드였다.

에피소드 속의 장소가 아닌 관객과 배우의 관계를 만들고자 했다.

무대와 객석이 점점 가까워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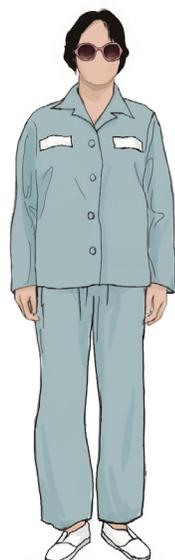
의상 스케치

홍문기

의상디자이너

교도소 안, 수많은 누군가 꿈을 꾸다.

누군가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는 끔찍한 악몽을, 누군가는 기분 좋은 어떠한 꿈을 꾸다. 교도소 안 누군가의 꿈 속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크레딧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
궁극의 맛
2020.6.2 - 6.20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출연
강애심 이수미 이주영 이봉련 김신혜 신윤지 송광일

원작
츠치야마 시게루 土山しげる 『고쿠도메시 極道めし』
(후타바사 간행 双葉社刊)

각색
황정은 진주 최보영

연출
신유청

드라마터그
윤성호

조연출
김진숙

무대디자인
박상봉

조명디자인
강지혜

조형오퍼레이터
김대현

조명팀
김대현 김병철 김병희 손민영 정태진 정호진 최재길

음악 · 음향디자인
지미 세르(Sert Jymmy)

음향시스템디자인
신승욱 류호성

음향오퍼레이터
장해나라

의상디자인
홍문기

의상디자인 어시스턴트
문혜민 변은아 최미림 김주현

소품디자인
최혜진

소품제작팀
김주영 박정경 이은정 배희정

분장디자인
정지윤

분장
김상민 최윤희

안무
이소영

원작 번역
이홍이

판권계약 코디네이트
원지혜

무대감독
박영규

무대제작
스테이지(대표 심광영 김재인)

무대제작팀장
김정호

그래픽디자인
일상의실천

사진기록
서울사진관

영상기록
다이핀

인쇄
퍼스트경일

기획 · 제작
두산아트센터

후원
두산

두산아트센터 연극 <궁극의 맛>은
원저작권자의 동명 만화 각색에 대한 정식 허가를 받아
한국적 정서에 맞게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두산아트센터

예술감독
강석란

기획
박찬중 정다운 이예나

프로듀서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최혜원 이규원 박수진

티켓매니저
이희정 김지수

기술감독
김관수

조명감독
황동철 왕은지

음향감독
신승욱 류호성

무대감독
강현후 민지홍

하우스매니저
권지은 심진경 방효주

회계
정다미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정진우 송소연 김성수 이지나 장유진



DOOSAN ART SCHOOL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3기

2020.7.4 – 8.3

참가자 모집

기간	2020.5.28 — 6.11
대상	만 19~24세 (1995년~2001년 출생자)
인원	분야별 20명 이내
참가비	무료

7.4 – 7.25 **희곡 워크숍 윤성호** 극작가

7.7 – 7.28 **무대미술 워크숍 진기종** 미술작가

7.13 – 8.3 **연기·연출 워크숍 김수정** 연출가

*분야별 7회차 진행, 전 회차 필수 참가

접수 및 문의
두산아트센터 doosanartcenter.com 02-708-5028
한국메세나협회 mecenat.or.kr 02-784-1510

두산아트센터 공모 2020-2021

두산아트랩

두산아트랩은 젊은 예술가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술가들은 두산아트랩을 통해 발전 과정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으며, 이후 작품 개발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2020년 6월 15일 - 7월 15일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작품개발비(팀당 7백만원)
- 발표 장소(Space111 또는 연습실), 부대장비 및 연습실
- 작품 개발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무대기술(무대감독, 사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홍보마케팅

발표기간 2021년 1 - 3월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 장르 제한 없음
- *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인원 7팀 *개인 혹은 단체 지원 가능

DAC Artist

DAC Artist는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접수기간 2021년 1월 4일 - 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공연제작비(최대 1억원)
- 공연장(Space111) 4주, 연습실 6주
- 두산아트센터 기획/제작 전반
- 홍보마케팅

발표기간 2022년 9 - 10월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학교작품 외 2개 작품 이상 창작활동 경험자 (작품은 유/무료 제한 없음)
- * 장르 제한 없음

인원 2명 * 개인만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두산아트센터 apply@doosanartcenter.com

왼쪽회화전

To Counterclockwise

박경률
Park Kyung Ryul
두산갤러리 서울 6.10 - 7.11

두산아트센터 2020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팬레터 뮤지컬 19.11.7~2.2

작 한재은 연출 김태형

베어 더 뮤지컬 뮤지컬 5.29~8.23

연출/안무 정도영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9.19~11.8

원작 앨런 베넷 연출 김태형

HOPE :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뮤지컬 11.19~21.2.7

극본 강남 연출 오루피나



Doosan Art LAB

앵커 연극 1.30~2.1

작/연출 서정완

양질의 단백질 연극 2.6~2.8

작/연출 김연주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연극 2.13~2.15

작 글과무대(황정은 진주 최보영)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연극 2.20~2.22

작 추태영 백지영 연출 추태영

두산인문극장 2020 : 푸드 FOOD

1인용 식탁 연극 5.6~5.23

원작 윤고는 각색 이오진 연출 이기쁨

궁극의 맛 연극 6.2~6.20

원작 초치아마 시게루 각색 황정은 진주 최보영 연출 신유청

식사(食事) 연극 6.30~7.18

작 안데스 윤한솔 이라영 조문기 연출 윤한솔

DAC Artist

이승희 신작 판소리 9.15~9.26

윤성호 신작 연극 10.13~10.31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구자혜 신작 연극 11.10~11.28

공동기획

문 밖에서 연극 7.25~8.1

작/연출 이양구

마른 대지 연극 8.8~8.23

작 루비 래 슈피겔 연출 윤혜숙

크리스마스 연극 12.5~12.26

작 루카스 네이스 연출 민세롬



두산갤러리 서울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1.15~2.15

최윤 개인전 5.6~5.30

박경률 개인전 6.10~7.11

전시기획 공모 선정작 7.22~8.19

김주원 개인전 9.9~10.21

우정수 개인전 11.11~12.16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아트랩 뉴욕 1.16~2.15

우정수 개인전 3.5~4.11

이윤이 개인전 6.25~8.15

박경률 개인전 9.10~10.17

최윤 개인전 11.5~12.17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0 : 푸드 FOOD 6.1~7.20

두산아트스쿨 : 미술 6.12~7.10, 10.8~11.5

두산아트스쿨 : 공연 7.24~8.14

두산아트스쿨 : 창작 워크숍 7.4~11.30

두산아트센터 투어 분기별 1회 예정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서울 02.708.5050 doosangallery.com

두산갤러리 뉴욕 +1.212.242.6343/6484

공연,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SEOUL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길 15
두산아트센터 1층 03129
T. 02-708-5050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 1-212-242-6343(6484)

RESIDENCY NY

548 West 28th Street Suite #231
New York, NY 10001
www.doosangallery.com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